



● 제3장 문화공보

- 제1절 문화예술 행정
-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 제3절 공보행정

제1절 문화예술 행정

1. 문화예술 진흥

우리 구는 사적 제215호인 국내 최장의 금정산성과 천년 고찰 범어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이자, 금정도서관·금정문화회관·금정체육공원·금정구민체육관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웰빙 도시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 중·고등학교가 소재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제3회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산업(관광)연계형 축제의 성공을 거두었고, 축제를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개발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부산대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연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부산대학교 일원에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 개최로 청소년·청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

■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3」 개최

문화예술교육특구 금정구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와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독창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문화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적 제215호인 금정산성과 민속주1호인 금정산성 막걸리 등의 지역특성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전통 역사 문화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2013」를 2013. 5. 24. ~ 5. 26. 3일간 금정산성 동문 및 금성동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금년도 축제는 기존의 제1회, 제2회 막걸리축제가 술축제라는 인식으로 가족단위의 관람객 참여가 저조하며, 주류광고 분류에 따른 축제의 홍보 제약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금정산성의 역사적 가치 및 교육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막걸리 축제에서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3」으로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또한 그 간의 이원화된 축제 장소를 축제 주제의 콘텐츠가 살아있는 금정산성 일원으로 행사 장소를 일원화하여 축제 집중도 제고와 축제의 문화적 특성 등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의 결실이 있었다. 이에 축제 주제를 부각시키는 전환점을 가졌으며, 금정산성 동문 일원 주제 체험 프로그램 및 산성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가족형 체험 및 금정산성의 역사성과 산성마을의 문화적 체험 등으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정구는 향후에도 지역 축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제 주제(소재)와 관련된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및 집약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주민과 직접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힘을 계획이다.

나.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 금정문화원

2000년 7월 개원한 금정문화원은 우리지역 고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추진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해 첫날 부산의 영산인 금정산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소리·우리 춤·우리가락의 멋스러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춤·소리공연 흥겨운 국악한마당 개최와 향토문화지 발간, 어르신들의 문화학교운영을 통하여 구민화합과 전통문화의 전승·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매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에서 벗어나 온천천·부산대일원에 토요상설공연, 여름밤 영화상영, 야외백일장 개최, 문화유적지 역사문화 탐방,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평생학습 박람회 체험행사 등 남녀노소 전 구민을 아우르는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 지역 문화원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로 교육문화특구 금정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가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 문학·미술·음악·사진·무용·연극·국악·서예협회 8개 분과 39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청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시 주관 또는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 각 분과 협회별로 전시·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예협회 「금정서예전」, 사진협회 「제12회 금정사진전」, 미술협회 「제17회 금정미술전」, 문인협회 「제18회 금정백일장」, 음악협회 「금정 열린음악회」, 무용협회 「금정무용제」, 연극협회 「배비장전」, 국악협회 「금정국악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각 분과협회별 기획행사 등 우리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더욱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 현황 〉

계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서예협회	국악협회
395	71	90	35	27	18	35	50	69

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 부산대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부산대 일원은 90년대 최고의 젊음의 거리였으나, 날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대학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 홍대거리, 우수문화시설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3년 9월 부산대 일원 다양한 문화공간들과 연계하고 국내·외 아티스트와 함께한 거리문화축제 부산인디페스타 ‘ZERO FESTIVAL 2013’은 인디밴드 거리공연, 실내공연, 미술작품 전시, 포럼, 독립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를 선보여 일반 시민과 문화단체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단체 반상회 ‘장전커넥션’을 중심으로 단체간 협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영화상영, 부산대학교 거리문화 전반에 대한 포럼, 전시 등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온천천 야외공연장 및 2013.10월에 조성된 도시철도 부산대역 앞 야외공연장은 만남·소통·어울림의 공간을 테마로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부산대학교



음악 오아시스' 및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 등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부산대학로가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도약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

침체되어 가는 부산대학로를 문화와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젊음의 문화거리로 만들어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부산대 일원에 예술공연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되었다.

2011. 12. 22.(목) 개소한 예술공연지원센터는 부산대 일원의 다양한 청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매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수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주요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단체 간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장전커넥션」을 연 5회 개최하였고, 문화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 「금정,문화로망(포럼)」을 연 3회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지역 문화단체와 대학축제 연계 「정문앞 오픈살롱」을 개최하여 민·관·학의 협력 프로그램의 발전가능성을 보였으며, 10월에는 국내·외 청년활동가와 대안공간 운영자를 초청하여 향후 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 및 활동을 공유하고, 금정구 청년문화 교류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구 단위 거점 문화기관과 문화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밖에도 지역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토요문화학교 'Hey-Hei-Ye 장애를 넘어 이해로 예술과 함께', 문화다양화 사업 'The Art Spora', 청소년축제 '작당한 페스티벌 청개구리의 반란'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센터 공간 대관 235회, 지역작가 작품 전시 3회, 공연·행사정보 중계 및 협력 25회 등 활발한 운영을 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춘 토크 콘서트 및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문화단체 리더 교류 행사 추진,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 우

수 문화컨텐츠 운영을 통하여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서동예술창작공간 조성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동 뉴타운지역에 빈집·폐공간 등을 조사한 후 특별교부세 600백만원, 시비 50백만원을 확보하여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였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서동로 149번길 8일원에 지상 2층 529.62㎡ 규모로 다목적홀, 북카페, 작은도서관, 강의실, 갤러리 등을 갖추고 2012. 6. 28. 개관하였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개관이후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 2013. 3월에는 Earth Hour, 「그때 그 서동시장」이라는 주제로 탄소배출량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계적인 불끄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 행사 동영상은 Earth Hour Korea 대표 동영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6월에는 서동예술창작공간 「1주년 기념 돌잔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바탕 축하잔치를 펼쳤다. 11월에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동 유니세프마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서동 전체에 유니세프이념을 전파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우인형 전시회 외 11회의 전시회, 수요상설 영화상영 41회, 토요일 상설 공연 「서동!!! 토요일은 예술이야」 6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모를 통해 팝업아트, 생활디자인, 연극놀이 등 3개 단체를 입주시켜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주1~2회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개최 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 컨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개단체에서 퓨전국악공연과 서동-신촌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재단 협력사업으로 “청소년 탐사보고서, 부산을 찾다”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공간 활성화라는 성과를 내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타 지자체 및 문화단체에서 연간 20회 이상 방문하기도 하였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사항 이행평가 대회인 201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



진대회에서 ‘공실을 활용한 문화예술 작업공간화’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 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문화복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서동예술창작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KBS 9시뉴스 특집 「서동정책이주지역 문화의 희망 싹트다」(2013.6.26방영), 부산 MBC 「공간다큐 그 곳」에서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집중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20회 이상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앞으로도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창작인프라를 구축하여 레지던스 사업과 지역 커뮤니티 결합을 통한 문화네트워크 구축하고, 서동시장 내에서 지역 문화컨텐츠 발굴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문 화 공 간 현 황 〉

계	문 화 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영 화 상영관	문 예 · 기념비	동 상	김정한 생 가
20	1	3	2	1	2	9	1	1

〈 문 화 회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구서동)	대 공연장 868석	금정구청
		소 공연장 330석	

〈 박 물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부산대학교 박물관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장전동)	1,900㎡	유물 21,235점	부산대학교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502㎡	22종 283점	범 어 사
오륜대 한국 순교자박물관	금정구 오륜대로 106-1(부곡동)	1,591.76㎡	유물 등 3,000여점	한국순교 복지수녀회

〈 도 서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서 동 도 서 관	금정구 서부로 76번길5(서동)	610.2㎡	도서 64,694권	부산시교육청
금 정 도 서 관	금정도서관로 33 (청룡동)	8,466㎡	도서 67,002권	금 정 구 청

〈 미 술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구 죽전1길 29(금성동)	271.4㎡	조각,회화 등 271점	정 영 재

〈 영 화 상 영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씨너스오투시네마	금정구 중앙대로 1607(부곡동)	총 1,175석	김 삼 여
CGV 부산대	금정구 장전로 12번길55(장전동)	총 1,186석	이준우 외 1

〈 문 예 · 기 념 비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 립 일 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4. 4. 26	금정구청장
향파 이주홍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2. 14	금정구청장
김종식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58-2)	'94. 4. 9	금정구청장
항산 고두동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7. 2. 22	금정구청장
김대륜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35-21)	'98. 2. 28	금정구청장
3·1운동 유공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11. 28	금정구청장
민영훈공 거사비	금정구 부곡2동 255-8	'93. 7.	금정구청장
신정웅열사 추모비	금정구 남산동 산1-1	'96.4.19.	금정구청장
6·25참전용사기념비	금정구 노포동 810-6	'03. 6. 18	금정구청장



〈 김 정 한 생 가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생가	금정구 팔송로 60-6(남산동)	2003. 5. 30	요산기념사업회

〈 동 상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박차정 의사 동상	금정구 구서1동 481번지	2001. 3. 1	금정구청장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1. 문화재 현황

우리 구에는 지정문화재 총 80점(국가지정문화재 14점, 시지정문화재 66점)이 있으며, 보관장소로는 정보박물관 47점, 범어사내 20점, 기타 13점으로 대부분의 문화재인 불교관련 서적 및 불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

2. 문화재 보호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사적 제215호로 우리나라 성곽 중 가장 규모가 큰 숭고한 호국정신이 깃든 국방유적지인 『금정산성』(길이 18,845m)과 국가지정 보물인 대웅전, 삼층석탑, 조계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등나무군락 외에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범어사』가 있으며, 이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 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금정산성 복원사업은 호국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두구·노포·오륜동 지역은 『노포동 고분군』을 비롯한 고분군 문화유적지로서 삼국시대와 가야시대의 유물이 발견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금정산과 범어사 등의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및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 관리대책 추진하고 있다.

가. 관리 실태

금정산성은 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중에 있으며,

범어사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목조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화관리 용역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문화재가 소재한 현지에 문화재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결활동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개 및 안내 등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나. 보호 관리 대책

■ 화재 예방

중요목조문화재(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배치(6명) 24시간 교대근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범어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정기적인 관리실태 안전점검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인한 문화재 훼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문화재 보수

가. 금정산성 정비사업

금정산성은 국내 최대의 국방유적지로서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복원하고 있으며, 민족문화 유산의 온전한 복원과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문루·망루 8개소 및 성곽을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성곽보수가 체성 형태로만 보수 승인되었으나, 2009년 보수공사 시행시 문화재위원 현장 확인, 자료 고증 등 수차례 협의에 의한 여장 설치로 제 모습을 갖춘 웅장함과 볼거리 제공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2013년에는 14억을 투입하여 북문주변(190.5m)의 성벽 해체보수 및 여장 설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정산성 복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중이다.

나. 범어사내 문화재 주변 정화사업

범어사는 금정산, 금정산성과 연계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보물인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또한 부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풍취와 면모를 일신하고자 노후, 퇴락, 조잡한 요사채를 개·보수하는 등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사채 증·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9년에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사업 및 전기 시설을 정비하였고, 2010년 대웅전 벽화모사 보수 보존처리와 강원건물 및 정보박물관 보수 정비, 2011년 보제루 해체 복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원효암 대웅전 및 요사채 해체보수, 2013년에는 일로향각, 청풍당, 비로전, 미륵전 해체보수 등 대웅전과 조계문 주변을 지속 정비하는 등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범어사 정보박물관 운영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왜적의 침입에 맞서 이 땅을 수호해 온 호국 사찰로 수많은 고승과 율사를 배출한 전통사찰이다. 사찰 내에 많은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으나 보존하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사업비 2,209백만원으로 1999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으며 2010년에 3억원으로 내부 전시실 인테리어 및 수장고 보수를 마무리하였다. 연면적 505.44m²의 유물전시관에는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수책판 등 22종 283점의 동산문화재를 전시하고, ‘금어연’ 제작, 관조스님 유작필름과 백운스님 소장전적을 기증받아 정비하는 등 관광객에게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까지 길이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4. 무형문화재 전승보급 추진

우리 민족 전통예술의 보전과 육성보급을 위하여 지정한 동래고무(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전수학교로 부산예술고등학교학생 20명, 동래지신밟기(시지정무형문화재 제4호) 전수학교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 48명, 동래학춤(시지정무형문화재 제12호) 전수학교로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학생 45명, 2013년에 새로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전수학교로 지정된 서명초등학교 학생 50명에 대하여 전승보조금(24,450천원)을 지원하여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예술행사 개최 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제176호(1966.1.13. 지정)인 범어사 등나무 군락은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희귀한 자생지로 예로부터 범어사 계곡 일대에 등나무꽃이 필 때면 그 경치가 아름다워 ‘등운곡(藤雲谷)’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식물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맺는데, 이곳은 수령이 약 100년 된 큰 등나무를 비롯하여 280여 종의 거목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과도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귀의주가 고사하면서 등나무도 따라서 고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찰로 825m 설치, 등나무 외과수술, 덩굴정리 및 당김줄 설치, 의목 설치 등 입지성 회복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등나무 군생지는 보기 드문 자연원시림으로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를 100백만원으로 등나무보호사업,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130백만원으로 등나무 군락 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6. 관광금정 구축

금정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구의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관광금정의 길잡이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금정구 관광안내지도』 한영판 7,000부, 중일판 5,000부 및 『금정산성 리플릿』 영문판 12,000부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등에 배부하였다.

그리고 금정산성 등 관광지에 재미난 스토리를 가미한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하고 노후 훼손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역사·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기억에 남는 체험관광을 도와주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범어사, 금정산성 등 외래방문객의 방문이 잦은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금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금정구 대표적 관광명소를 테마별로 소개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와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테마별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관광지에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을 설치한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고장 금정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특색에 맞게 발굴·관리하여 관광금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관광금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 총 현 황 〉

(2013. 12. 31. 현재)

(단위 : 점)

계	국 가지 정 문 화 재 (14)						시 지 정 문 화 재 (66)				
	국 보	보 물	사 적	천 연 기 념 물	무 형 문 화 재	중 요 민 속 문 화 재	유 형 문 화 재	무 형 문 화 재	기 념 물	민 속 자 료	문 화 재 자 료
80	-	10	1	1	1	1	40	-	3	1	22

〈 국 가 지 정 문 화 재 〉

종 별 (지정번호)	문 화재명	내 용 또는 특 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보 물 (제250호)	범어사 삼층석탑 (梵魚寺 三層石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탑으로 당시의 불탑 및 조각수법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1963.1.21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419-3호)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 서울 광영대 소장본이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음. (1512년 중종 7)	2002.10.19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434호)	범어사 대웅전 (梵魚寺 大雄殿)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을 조선 중기에 중창한 목조 건물로 불당의 구조 및 양식이 잘 나타나 있음	1966.2.28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1461호)	범어사 조계문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한 일주문의 걸작품임	2006.2.7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894-2호)	주범망경 (注梵網經)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으로 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인데 줄여서 주범망경이라고 함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224-2호)	불조삼경 (佛祖三經)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과 부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 그리고 중국 위양종의 초조인 영우의 위산경책 등 불경 3종이 합집된 것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5호)	금장요집경 (金藏要集經)	이 책은 북제(北齊)의 승려 도기(道紀)가 각 경전에서 불교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인과응보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편찬한 7권 가운데 2권(권1-2)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6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이 삼존좌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주불로서 개금시(改金時)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기문과 불상기인발원축을 통하여 석가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의 수기삼존불로 조성	2007.9.18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1595-2호)	목장지도 (牧場地圖)	숙종 때 국가의 중대한 마정(馬政)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목장의 실태에 대한 그림과 지리적 지식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008.12.22	부산대학교 도서관내
사 적 (제215호)	금정산성 (金井山城)	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으로 임란이후 현 규모로 조성된 국방유적임	1971.2.9	금성동일원
천 연 기념물 (제176호)	범어사 등나무 군락 (藤나무 群落)	수령 100년생의 등나무 5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면적 55,934㎡)	1966.1.13	청룡동 산2-1 범어사경내
보 물 (제1733호)	부산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靑銅북)	1666년에 조성된 국청사 금고는 직경이 65.3cm에 이르는 제법 규모가 큰 작품으로 일부 산화된것 외에는 파손된 곳이 없이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조선후기 금고의 선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2011.12.2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 형 문화재 (제80호)	자수장 (刺繡匠)	여러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조형활동의 전통공예기술	1996.12.10	부곡3동 64
중요민속 문화재(제24호)	의왕 원유관 (義王 遠遊冠)	고종과 귀인 장씨 소생인 의화군이 의왕책봉때 착용한 왕실용 관모로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원유관임	2013.06.14	오륜대한국 순교자박물관

〈시 지 정 문 화 재〉

종 별 (지정번호)	문 화재 명	내 용 또는 특징	지 정 년 월 일	소재지
유 형 문 화재 (제9호)	오층석탑 (五層石塔)	전형적인 오층석탑으로 1층 4면에 각 천왕의 특징이 뚜렷한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음	1972.6.26	장전동산30 부산대학교 박물관앞
유 형 문 화재 (제11호)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효암내
유 형 문 화재 (제12호)	원효암 서편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효암내
유 형 문 화재 (제15호)	범어사 당간지주 (梵魚寺 幢竿支柱)	법회나 의식이 있을 때 대형 기치를 걸어두는 지주로 장식이 전혀 없어 간결 소박한 멋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 화재 (제16호)	범어사 석등 (梵魚寺 石燈)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등으로 각 부분이 8각으로 되어 있음	1972.6.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 화재 (제25호)	이안눌 청룡암시 목판 (李安訥 靑龍巖詩 木板)	동래부사였던 이안눌이 범어사를 방문하고 지장전 옆 바위에 새긴 시를 목판으로 판각한 것 (1609년 광해군 원년)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재 (제26호)	『천수』 책판 (千手 冊版)	7판으로 된 천수경판으로 김해 감로사에서 개간한 것을 범어사로 옮겨와 간행한 것 (1676년 숙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재 (제27호)	『어산집』 책판 (魚山集 冊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범어사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범응집의 일종으로 범패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재 (제28호)	『범어사기』, 『범어사창건사적』, 『범어사고적』 판 (梵魚寺紀, 梵魚寺 創建史蹟, 梵魚寺古蹟板)	범어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을 새긴 3종의 목판으로 古木板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재 (제29호)	『선문촬요』 책판 (禪門撮要 冊版)	중국 역대 선사들의 저술과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술을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재 (제30호)	『권왕문』 책판 (勸往文 冊版)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의 권왕가, 자책가, 서왕가를 언문으로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재 (제32호)	태전화상주심경 (太顓和尚柱心經)	당나라 고승인 태전화상이 반야심경에 주석을 한 책 (1411년 태종 11)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재 (제33호)	함허어록 (函虛語錄)	조선초 고승인 己和의 시문집으로 우리나라 불교연원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임 (1440년 세종 2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내 용 또는 특 징	지 정 년 월 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34호)	지공직지 (指空直旨)	인도 승려인 지공선사의 진리의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한 책 (1475년 성종 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5호)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당나라 원각이 수행과정에 대해 적은 책으로 1381년판본이 보물 641호로 지정됨 (1542년 중종 37)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6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경전으로 1378년 판본이 보물 705호로 지정됨 (1562년 명종 1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7호)	육조대사법보단경 (六朝大師法寶壇經)	禪宗의 6대조 慧能의 일대기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경전처럼 존중 받는 책 (1569년 선조 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8호)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 한 책 (1570년 선조3)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9호)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석가탄생에서 1334년까지 고승대덕의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 737호로 지정되어 있음 (1430년 세종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0호)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원나라 몽산화상 법어를 요약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768호로 지정되어 있음 (1579년 선조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1호)	법화경 (法華經)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문헌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임 (1527~1711년 중종22~숙종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1호)	범어사 사천왕도 (梵魚寺 四天王圖)	1869년 제작, 세로350cm 두루마리형으로 사천왕상 단독으로 그려진 불화는 현재 범어사 소장본이 제일 규모가 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2호)	범어사 제석신중도 (梵魚寺 帝釋神衆圖)	기년명이 뚜렷하여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19세기 명문서식과 조선 후기 영남지역 화승들의 계보를 참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3호)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자애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관음보살도로서 관음전 전각의 관음불상의 후불화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4호)	범어사 의상대사영정 (梵魚寺 義湘大師影幀)	고려시대 양식 계승, 1767년 작품으로 조선 후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63호)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梵魚寺 捌相·獨聖·羅漢殿)	한 채에 세 법당을 연이어 붙인 길쭉한 건물로서 1613년 묘전화상이 나한전을 창건, 1705년 명학스님이 팔상전을, 1905년 학암스님이 현재의 건물로 새롭게 중건함	2006.7.3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 형 문화재 (제67호)	범어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1882년에 제작된 족자형의 대형 탕화이다. 대형 화면에 본존불을 위시한 협시상들과 엄숙한 표정의신중들이 잘 조화를 이룸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8호)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1882년에 제작 상·하단으로 나누어 진 화면의 천장 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좌상의 지지보살과 지장보살 을 배치함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9호)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대웅전 내부 우측 벽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신중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0호)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18세기 전반의 작품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이며, 작품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특히 대좌의 묵서명에 의해 제작시기, 봉안처, 조각승 등이 확실히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1호)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 불좌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那三尊坐像)	관음전 목조불상과 함께 조각승 진열의 작품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3호)	범어사석조연화 대좌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臺座下臺石)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좌 중 폭이 47cm에 이르는 규모가 큰 8각의 하대석이다.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2호)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彌勒殿 木造如來坐像))	미륵전에 단독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현재 범어사에 봉안된 목조 불상 중 규모가 가장 큼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6호)	불설장수멸죄회 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 護諸童子陀羅尼經)	인도 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676년에 번역한 책으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석가세존(釋迦世尊)이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에게 일체 중생의 멸죄장수(滅罪長壽)의 법을 설(說)한 경	2007.9.7	금정중학교 (남산동385번지)
유 형 문화재 (제80호)	금강반야바라밀 경(金剛般若波羅密 經)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혀졌던 대표적인 불교경전 중의 하나로서 금강경(金剛經) 또는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라고도 불림.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81호)	보리달마사행론 (菩提達摩四行論)	달마의 선사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고, 행입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생활방식으로 사행(四行)이 있음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내 용 또는 특 징	지 정 년 월 일	소 재 지
유 형 문 화 재 (제82호)	선문염송집 (禪門揔頌集)	이 책은 한국 선불교에 초석을 놓은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의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諱)이 지눌에 의해 주창된 간화선(看話禪)의 선종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염·송·사당거화(拈·頌·士堂擧話) 등 중요한 말들을 모아 총 30권으로 집성·편찬한 책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 화 재 (제90호)	범어사 동종 (梵魚寺 銅鐘)	1728년에 제작된 범어사 동종은 우리나라 18세기 범종 주성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전라도 출신 김성원과 김선봉이 주성한 것으로 현존하는 18세기 범종으로는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하는 작품.	2008.9.11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 화 재 (제96호)	범어사 원효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본 보살좌상은 방형의 얼굴, 뭉툭한 코, 머리의 비례가 짧음, 대의의 특징 중 목 좌우측 옷깃이 역삼각형을 이룬 점, 대의 끝자락이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으로 처리된 점 등은 모두 조선시대 17세기 불상 혹은 보살상에서 흔히 엿보이는 특징과 유사	2008.12.16	원 효 암
유 형 문 화 재 (제 130호)	금천선원 묘법연화경 (金泉禪院 妙法蓮華經)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1477년에 간행된 오래된 판본으로 전해지는 7권 원본임	2013.10.23	금 천 선 원
기 념 물 (제15호)	금정산성부설비 (金井山城復設碑)	1808년 금정산성을 재축한 후 이에 대한 공사관계 사항 등을 기록한 비	1972.6.26	장전동 482
기 념 물 (제42호)	노포동 고분군 (老圃洞 古墳群)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삼한시대 후기나 삼국시대 초기의 분묘 유적으로서 주거지 2동, 토광묘 45기, 옹관묘 6기에서 토기, 철기, 석기 등의 유물 출토	1996.5.25	노포동 142-1,2
기 념 물 (제62호)	금정산 금샘 (金井山 金井)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이름이자 범어사 창건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명소로 많은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신비한 압괴류	2013.9.25	청룡동 산2-1
민속자료 (제1호)	황실축원장엄수 (皇室祝願莊嚴繡)	한말 황실에서 범어사에 하사한 장엄수로서 당시 궁중 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1899~190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호)	순치8년명 청동은입사향완 (順治8年銘 靑銅銀入絲香盃)	조성연대, 조성지역, 봉헌지 등이 명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향완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1651년 효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호)	도광명유제양이부대발 (道光銘鍮製 兩耳附大鉢)	불교 공예품 중 의식법구로서뿐 아니라 사찰의 바루공양 의식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1822~5년 순조 25~28)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내 용 또는 특징	지 정 년 월 일	소 재 지
문화재 자 료 (제5호)	동치원년명 범어사 금고 (同治元年銘 梵魚寺 金鼓)	고려시대 조성된 금고 양식을 계승한 조선후기의 대형 금고로서 조성연대,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려 주는 자료임(1862년 철종 13)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6호)	선방 축성패 (禪房 祝聖牌)	사찰 선방에 모셔놓고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 기원하던 축성패로서 당시 궁중자수의 유형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임.(한말)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0호)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주색지에 백색선묘 기법을 지닌 비왕실 계층 민중 불화의 백색선묘 불화의 흐름을 이은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1호)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와 표현기법이 동일, 제작 시기는 1860년대로 조선후기 불교미술연구에 귀중 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2호)	범어사 석가 26보살도 (梵魚寺 釋迦二十六菩薩圖)	1887년 제작,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 하는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3호)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 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4호)	범어사 칠성도 (梵魚寺 七星圖)	1891년 제작으로 범어사의 불교미술양식과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1호)	범어사 목조시방삼보자존패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尊牌)	조선시대 원패의 일반적인 형태,조선후기 불교의식 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2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조선후기 불단 봉안 목패의 기본형태인 능화형 주연과 연화대좌 및 운룡문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3호)	범어사 목조 옴마니반메흠소통 (梵魚寺木造 옴마니반메흠疏筒)	조선후기 소통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불교의식과 불교공예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4호)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정방형에 가까운 몸체와 우진각형 뚜껍의 기본골격 은 목재로 가구하고 그 표면을 어피로 감싼 후 각 모서리마다 황동 장식으로 마감한 조선후기의 인통 으로 대찰(大刹)에서 제작하여 전해지는 불교공예품 으로 드문 유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내 용 또는 특 징	지 정 년 월 일	소 재 지
문화재 자 료 (제25호)	범어사 연 (梵魚寺 輦)	가마채인 네 개의 손잡이, 작은집 모양의 몸체, 돛 형식의 옥개로 구성되어 조선후기에 제작되어 그 시대의 연의 형태를 고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정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6호)	범어사 바라 (梵魚寺바라(饒鉞))	놋쇠를 두들겨 제작한 방자유기로 제작연대가 오 래된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정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6호)	금정진 관아터 (金井鎭 官衙址)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국 내 최장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 의 유지(遺址)로서 관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군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생활상을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2006.7.3	금성동 280번지 일원
문화재 자 료 (제44호)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淸寺 金井山 城僧將印)	승병의 통솔 및 관할을 위하여 제작된 것 으로 보이며, 승병관계를 실증적으로 알려 주는 소한한 자료	2008.9.11	범어사 정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5호)	범어사 자수수복문 병풍 (梵魚寺 繡壽福文 屏風)	조선 말기 불교에 뜻있는 궁인(宮人)이 제작 하 여 발복 청원의 뜻으로 범어사에 공양한 것으 로 보이며 자수의 기법은 뛰어나지 않으나 각 글자의 색조를 달리하여 녹색(綠), 청(靑), 자(紫), 남(藍), 황(黃), 홍(紅), 흑(黑), 백(白) 등 최소 8 가지 이상의 자연 염색된 비단실로 수 놓여짐	2008.9.11	범어사 정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8호)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內院庵 石造菩薩坐像)	눈, 코, 입이 작은 편이며 머리에 두건을 쓰 고 있고. 수인은 두 손 모두 땅을 향해 아래 로 늘어뜨려져 있다. 두건과 수인을 통해 이 보살상은 지장보살상으로 추정할 수 있 으나 정확한 도상은 좀 더 연구 필요함.	2008.12.16	범어사 내원암
문화재 자 료 (제52호)	석조여래좌상 (石造如來坐像)	광서18년(1892년) 제작되었고, 제작자인 금 어비구(金魚比丘)는 해규스님으로 밝혀짐 소 형이지만 불상 조각양식상 조선후기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수작(秀作)의 불상 작품	2010.5.24	금정중학교
문화재 자 료 (제57호)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梵魚寺 高麗三層石塔)	이종기단에 옥개받침을 지닌 옥개석 등 통일신 라시대의 전형 석탑양식을 따르고 있는 석탑이 다. 다만 석탑의 전체적인 규모와 하층기단 면 석에 하대저석을 조출한 점, 3단 각형으로 얇게 표현된 옥개받침 양식 등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판단된다	2011.3.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문화재 자 료 (제71호)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2책으로 된 목판본으로 17세기~18세기초에 판각 하여 후쇄한 것으로 조선시대 윤리관을 이해하 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2013.10.23	부산대학교 도서관

제3절 공 보 행 정

1. 공보행정의 기본방향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보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보행정의 목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선진 복지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구는 세계화 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기법을 개발해 보다 앞서가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방적으로 구정을 알리는 행정에서 새로운 구정 시책에 대한 비판과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구정모니터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보다 알찬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대 구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 행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보행정의 방향을

- 첫째,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 둘째,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 셋째, 금정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및 SNS(트위터, 블로그) 운영 등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언론매체(신문, 방송 등)를 통한 홍보

구정의 각종 시책 등 보도자료를 구 출입 7개 언론 방송사를 비롯하여 총 46여개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다수의 주민이 빠르고 정확하게 구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다.

언론매체는 전파를 활용하여 다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과 지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공중파 TV 매체의 지방뉴스시간 등을 활용하여 구정시책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방송 매체인 CJ케이블 방송과 연계하여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소식을 방송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면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으로 각 일간지와 지역신문의 사회면, 포토뉴스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구정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다.

방송은 전달 이용 범위가 넓고 현장감이 있어 호소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신문은 독자층이 광범위 하고 공신력이 높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보도 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

언론매체도 홍보여건의 변화 추세에 따라 개방화·생활화 되고 있으므로 언론인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브리핑 제도의 정례화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 2013년 언론보도 현황

- 언론보도 : 690건(홍보성 570건, 시정성 84건, 사실 36건)
- 자료제공 : 중점사업, 당면현안업무, 우수시책, 수범(미담사례) 등

나. 월간 「금정소식」 발간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구정의 홍보와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일 「금정소식」을 제작 발행하여 구정 주요소식이나 생활정보, 지역미담 사례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정소식」은 지난 88년 1월 우리구 개청과 더불어 발간해 오다가 시대적 환경 변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2년 4월부터는 타블로이드 16면으로 증간하여 현재 매월 45,500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인 「e-book 금정소식」을 발행하여 홈페이지에서 상시 구독 가능하고 인터넷 구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개인 메일로 송부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정소식지 발행 : 12회 546천부(매월 45,500부)
- 2007년 2월부터 4만부 발행, 2012년 3월부터 4만5천5백부 발행
- 배부처 : 구청,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지하철역, 아파트, 대형마트, 영화관 등
- 인터넷 신문(e-book 금정소식) 발행 : 12회(구 홈페이지 게재)
- 메일링서비스 신청 구독자 수 : 2,000여명

다. 실시간 미디어 SNS를 활용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발맞춘 홍보 방안으로 2011년 3월 31일부터 트위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구정행사 및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구정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Feel 금정 블로그 기자들이 취재한 다양한 콘텐츠와 생동감 넘치는 사진으로 한층 더 친근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광범위하고 발 빠른 홍보를 위해 금정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해 활동함으로써 구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금정구 트위터 운영 (<https://twitter.com/geumjeonggu>)
- 팔로워수 : 4,499명(누적)
- 금정구 블로그 운영 (<http://blog.naver.com/geumjeonggu>)
- 방문횟수 : 85,295회(누적)



2013 언론에서 본 금정구청

【 금정구 문화예술특구 사업 본격 시작 】

지난달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화 예술특구로 지정된 금정구가 오늘 특구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금정구는 오는 2016년까지 29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문화와 융합된 문화 예술교육과 창의 도시사업 등 10개 사업과 청년층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등 특화도시사업 11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KBS-TV 1.7./ MBC-TV 1.7./ KNN-TV 1.9./ 국제신문 1.9./ 연합뉴스 1.10.

【 ‘걸어서 주민속으로’ 부산 금정구 로드스테이 추진 】

부산 금정구는 구청장이나 동장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로드 스테이’, 이른바 정거장 대화를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로드 스테이’대화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길에 버스 정류장 형태의 정거장을 만든 후 이곳에서 구청장이나 동장, 민원 담당자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CBS 1.21. / 국제신문 1.21.,3.9, / 한국일보, CJ헬로TV 3.7.)

【 40년 ‘원정목욕’ 설움 풀었습니다 】

부산의 한 동네에 지역주민들이 40년 동안 염원했던 목욕탕이 지어졌다.

금정구는 선두구동 목욕탕 다음 달 25일 준공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흔한 목욕탕이 없어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원정목욕’을 떠났다.

연면적 692.8㎡ 규모인 이곳은 모두 2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A동(지하 1층, 지상 2층)에는 목욕탕과 이·미용실이 입점하고, B동(지상 2층)에는 세탁소와 농축산물 판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목욕비는 3000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신문 2.25. / CJ 헬로 5.27. / 부산일보 12.4.)

【 똑똑한 CCTV가 실종 치매노인 찾아준다 】

최근 각종 범죄나 교통사고에 cctv가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우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하는데요. 금정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1월 개관했습니다.

방범용 cctv 172대, 지역 초등학교 주변 124대, 불법주정차단속 82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43대 등 447대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엔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가 개발·설치된다.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는 CCTV에 비친 얼굴과 실종자 DB의 사진을 비교·분석해 일치할 경우 바로 경찰이 출동해 실종자를 찾는 방식이다. 먼저 통합관제센터에 지역 실종자 사진과 신체 특징 DB를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CCTV 화면에 잡힌 얼굴과 실종자 DB의 얼굴을 실시간 비교한다. 프로그램에서 일치율이 높은 인물이 나오면 곧바로 관제 요원의 모니터에 띄운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기술적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개발·설치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 CJ 헬로TV 3.9. / 조선일보 7.4. / 연합뉴스 7.4. / 부산일보 7.4. /
국제신문 7.5. / CJ 헬로TV 7.5. / MBC 7.4.

【 장난감 도서관 인기.. 복지관 부속서 독립 따로 운영 】

금정구가 장난감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는 등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금정구는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남산동에 142.40㎡(약 43평) 규모의 장난감 도서관을 짓고 있다. 아직 개소하지는 않았지만 2천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540여 종의 장난감을 구매했다. 이용기간도 4박 5일에서 1주일 등 각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반납이 늦어지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위생을 위해서 장난감 세척실이 따로 있고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한다는 점도 부모들의 발걸음이 잦은 이유다.

▶ 부산일보 3.18. / KBS-TV 7.2. / KNN-TV 7.2. / 연합뉴스 7.2.

【 'REID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확 줄었네 】

지난달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기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금정구와 수영구 일대 아파트 21개 단지 1만 4996세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결과를 취합했더니 1일 평균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고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구 경남한 신아파트(1408세대)와 경동아파트(612) 등 7곳은 50% 이상 감축됐다. 전체적으로는 금정구가 47.37%, 수영구가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신문 4.15. / 국민일보 4.17.

【 부산 금정·중·사하구 공약이행 우수 】

매니페스토본부가 최근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금정구는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등 5개 부문에서 평균 85점을 넘어 2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금정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과 약속한 5개 분야 27개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4.23. / CBS 4.23. / 부산일보 4.25.

【 시영아파트, 주민 손으로 화사하게 】

지역 주민과 대학생 자원 봉사자, 지자체가 힘을 합쳐 시영아파트의 인상을 바꾸고 있다. 부산 금정구 부곡1동 시영아파트 길이 50m, 높이 3.8m 벽에 대형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금정구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가족 50명,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 40명, 가온누리봉사단 15명 등 105명이 참여해 벽화를 완성한다.

▶ 부산일보 4. 29. / KBS - TV 5.8.

【 생태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금정산 이야기 버스체험 누리길 만든다 】

부산 금정구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8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80일간 평일 오전 10~11시(주말 제외)에 일광여객의 협조로 이야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03번 좌석 버스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맞은편 홈플러스 앞에서 15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금정산 이야기는 부산대 후문에서 동문까지 10분 정도 펼쳐진다. 산성 버스를 이용하는 등산·관광객이 해설사의 구수한 입담 속에서 금정산의 지형적 특성, 나이, 금샘의 유래, 금정산성 4대문, 산성막걸리 같은 금정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한 것.

승객 중 일정 수 이상의 희망자가 있으면 해설사가 산행객을 직접 인솔하는 '금정산 생태문화탐방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 동아일보 5.3. / 부산일보 5.4. / 내일신문 5.13.

【 24일 개막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초등생도 나선다 】

부산 금정산성 막걸리축제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3'으로 새로 태어났다. '천년의 멋, 천상의 맛.' 부산을 대표하는 금정산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24~26일 금정산성 동문과 금성동 산성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두 번의 축제를 거치면서 축제에 관심없던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 연합뉴스 5.18. / 부산일보 5.22. / 동아일보 5.23. / 문화일보 5.23. / 스포츠조선 5.22. / 국제신문 5.24. / 조선일보 5.24. / MBC-TV 5.25.

【 부산 오지마을에 '경사' 40년만에 목욕탕 】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목욕탕 없는 불편을 겪어야 했던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졌다. 부산 금정구는 22일 오후 3시 금정구 선두구동에서 목욕탕과 농축산물 판매장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모두 17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지하 층 연면적 692㎡ 규모로 만들어진 주민공동목욕탕은 남·여탕과 이·미용실이 갖췄으며, 별동으로 지상 2층 농산물직거래장이 들어섰다.

▶ 연합뉴스 5.22. / CBS 5.22.

【 서동예술창작공간 1주년 기념행사 】

서동시장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와는 대조되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다. 얼핏 지나치면 이곳에 예술 공간이 있다고 보기 힘든 위치지만 작은 앞마당과 함께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오는 28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5일에는 서동예술창작공간 앞길에서 개관 1주년 돌잔치도 열었



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다른 지자체의 예술가 입주 공간과 태생이 조금 다르다. 지자체가 공간을 조성해놓고 창작공간을 원하는 예술가들을 입주시킨 것이 아니라 공간 조성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예술가들과 의논해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MBC-TV 6.15. / 부산일보 6.21.

【 금정구 평생학습도시 선정 】

부산 금정구는 교과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1억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금정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기초 학습센터, 행복학습지원센터, 하모니 어울림사업, 숲 해설사 양성, 금정산 이야기버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7.9. / MBC-TV 7.10.

【 금정구 회동수원지변 땅피산에 ‘맨발 황토길’ 조성 】

부산 금정구가 오륜동 회동수원지변 땅피산 일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최근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곳에는 길이 약 1km 정도를 맨발로 걷고 나면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만들어 졌다.

오륜동 본동마을 앞 갈대습지에는 데크(deck)길을 만들어 수심과 관계없이 언제나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길을 따라 버드나무 고목 숲과 갈대수풀 사이를 걸어가면 노루나 철새도 만날 수 있다. 이곳과 연결된 1km 남짓한 땅피산 등산로는 수원지 물높이와 맞닿아 이어진 명소. 토질이 붉고 점성이 강해 ‘땅피산 맨발 황토숲길’로 꾸몄다. 황토길 중간에는 편백 조림지가 있다. 산책로와 함께 평상이 설치돼 삼림욕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화장실은 상현마을 입구와 땅피산 출구 쪽에 2곳을 마련했다.

▶ 아시아투데이 7.9. / CJ-헬로 8.1. / 동아일보 11.6. / 국민일보 11.6.

【 금정산성 복문성곽 옛모습대로 복원 】

부산을 대표하는 금정산성 복문성곽 일대(사진)가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다. 부산 금정구와 문화재청은 사업비 14억2900만 원(국비 10억,

시비 4억29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1월까지 금정산성 북문성곽 일대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정산성은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부분을 1972년부터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왔고 2007년 이후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해마다 차례로 손보고 있다. 이번 성곽정비의 핵심은 금정산성이 지닌 고유의 특징과 형식을 최대한 살려 축성 당시의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되게 하는 것이다.

▶ 뉴시스 10.22. / 국제신문 10.23. / 연합뉴스 10.24.

【 부산 금정구 서동, 유니세프마을 된다 】

부산 금정구는 10일 오후 3시 서동예술창작공원 일원에서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 체결 1주년 기념식과 서동유니세프마을 선포식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해 9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서동 유니세프마을 선포식은 '종이비행기 날리기'로 시작된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유니세프 슬로건을 서동에 접목, 유니세프와 함께 발전해 나갈 서동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유니세프 벽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것이다.

▶ 아시아뉴스통신 11.7. / 연합뉴스 11.8. / 국민일보 11.8 / CBS 11.9. / KBS-R 11.10. / 동아일보 11.12. / KNN-TV 11.14.